

지 상 범 석

순리대로 살면 '정각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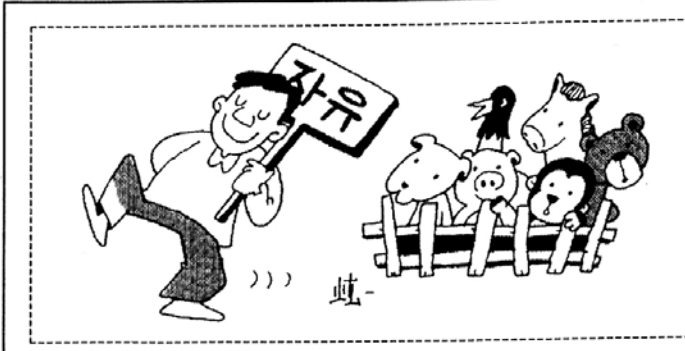
“우리의 생명체는 무안비설신의 가상의 이몸에서 생명본질 찾을 수 없어”

이 몸에서 생명의 본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념(無念)과 무작(無作)으로 선을 실천 하면 망상이 다하고 작위(作爲)가 끊어진 자리에서 생명의 본질이 하나로 귀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물의 원리에 미(迷)했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허공의 모든 요소가 지나고 있는 성품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정각인 것입니다.

요청해 왔기에 응했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했지요. 그들도 천지창조 설 같은 부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니다. 본래부터 청정하고 신령하기에 무엇이든 붙일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증득하셨기에 각자(覺者)가 되신 것입니다.



진화론이 대두된 이후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상의 전 생물계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각에서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여 본다면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

깨달음의 세계에선 너와나 우주와 내가 하나 중생은 육체 6根 6塵 6識 놀음 반복

바로 우주의 생명체인 이 마음을 의지하여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대로 행하며 받드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 남자는 여자가 예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예쁜가를 고양이에게 물어 보십시오. 장미꽃을 강아지한테 주어 보십시오. 무엇을 알겠습니까?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 자체는 바로 물이듯이 인연따라 모양변하는 허상 쫓지 말고 진리 깨달아 자유인 되십시오”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 본체 지리는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땅에 출현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부처님 성도는 35억년 생명사의 전환점 환경·신체 제약벗어나 일체로부터 해탈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의 육체가 그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는데 비해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개온신의 나무를 치러 ...



죄업을 참회하고 나쁜 습관 변화시켜 보살의 길 닦으리라. 아침이슬, 우리인생 슬픔 없애지거라.

- 일시 1차(2박 3일) 1월 19일 17시 ~ 1월 21일 14시까지 2차(2박 3일) 1월 26일 17시 ~ 1월 28일 14시까지 3차(2박 3일) 2월 9일 17시 ~ 2월 11일 14시까지

水子靈 천도를 위한 49재 봉행 안내 수자지장 보살을 봉안하고 낙태 유산아의 천도를 기도해 온 대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자령 천도를 위한 49재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공덕의 삶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림 설명: 수자령가의 천도를 발원하여 이 세상 에 자비의 몸을 나누신 수자지장보살(수불용)